



■ 금주의 프로야구

SK, 한국시리즈 직행 굳히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직행 초읽기에 들어간 SK 와이번스가 이번주(18~23일) 포스트시즌 잠재적 라이벌인 4강팀 삼성, 한화와 잇따라 맞붙는다.

선두를 질주중인 SK는 최근 4연승으로 가속페달을 밟으며 2위 두산과 간격을 6게임 차로 벌려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한 매직넘버를 '5'로 줄인 상태.

남은 경기에서 하위팀들이 전승을 거두더라도 SK가 5승을 추가하면 자력으로 페넌트레이스 1위를 확정짓고 한국시리즈에 직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SK로서는 2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 한화와 이번 주 '운명의 5연전'을 잘 통과한다면 이번 주말에 삼재승을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는 19~20일 삼성을 안방인 인천 문학구장으로 불러들여 2연전을 치른 뒤 21~22일에는 한화와 대전 원정 2연전에 이어 주말 마지막날인 23일 다시 삼성과 문학에서 맞붙는다.

한국시리즈 직행 명운을 가를 삼성과 3경기가 중요하다.

삼성·한화와 5연전

전승팬 자력 진출

KIA는 삼성·현대·한화전

SK는 올해 삼성과 상대전적에서 5승8패2무의 열세에 놓여 있지만 최근 4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강점이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외국인선수 제이미 브라운(11승)이 주축인 선발진과 철벽 마무리 오승환과 부상에서 복귀한 볼펜의 핵 권혁이 지키는 허리도 8개 구단 최강이다.

SK와 주중 맞대결을 펼칠 한화도 류현진(15승)-정민철(11승)-세드릭 바위스(10승) 등 제3선발까지 안정감을 이뤘고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중삼타선의 이병호와 김태균이 살아날 기미를 보여 희망적이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17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 K	67	44	5	0.604	-	4승
2	두산	63	52	2	0.548	6.0	1승
3	삼성	58	50	4	0.537	7.5	1패
4	한화	59	52	2	0.532	8.0	1패
5	L G	54	57	6	0.486	13.0	2패
6	롯데	52	63	3	0.452	17.0	1승
7	현대	50	64	1	0.439	18.5	2패
8	KIA	46	67	1	0.407	21.5	1승

KIA는 이번 주 광주와 수원을 오가며 모두 3경기를 치른다.

18일에는 광주에서 속직 삼성과 한 차례 맞붙고, 22일엔 수원으로 상경해 현대와 격돌한다.

또 23일엔 광주로 다시 돌아와 한화와 한 경기를 치른다. 23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 경기는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18일 광주 KIA-삼성전은 KIA는 윤석민을, 삼성은 브라운을 각각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하인스 워드

55야드 전진

팀 2연승 견인

미 프로풋볼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한국계 선수 하인스 워드(31)가 55야드를 전진하며 팀의 2연승에 힘을 보탤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17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열린 버펄로 빌스와 정규 시즌 2주차 경기 홈 개막전에 출전, 터치다운을 올리는 못했지만 다섯 번 패스를 받아 55야드를 전진하며 공격에 일조했다.

1주일 전 클리블랜드와 개막전에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화려하게 시즌을 열었던 워드는 이날까지 2경기에서 8번 패스를 잡아 106야드를 전진, 패스당 평균 13.25야드 홀로 진격했다.

한편 피츠버그는 제프 리드의 4연승 필드골로 전반에만 12-0으로 앞서갔고 3.4쿼터에 각각 터치다운 1개씩을 보태며 버펄로에 26-3으로 승리, 2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한국계 선수 하인스 워드(위)가 17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버펄로 빌스와 시즌 2주차 개막전에서 상대선수의 태클을 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 '별들의 전쟁' 시작된다

내일부터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 리그...4개팀씩 8개조

'별들의 전쟁'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가 19일 새벽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월 중순 1차 예선을 시작으로 2개월간 걸친 치열한 '본선행 전쟁'을 통과한 16개 팀은 본선 조별리그에 직행한 16개 팀과 합쳐져 4개 팀씩 8개조로 나뉘어 19일부터 16강 진출을 위한 싸움에 들어간다.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의 관심사는 지난해 챔피언에 오르면서 역대 7회 우승을 차지한 AC밀란(이탈리아)이 2연패를 달성을 통해 역대 최고 우승기록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9회 우승)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셀틱(스코틀랜드), 베니카(포르투갈), 샤프타르(우크라이나)와 함께 비교적 무난한 D조에 편성된 AC밀란은 19일 새벽 3시45분 홈구장인 주세페 메차 스타디움에서 베니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AC밀란은 2007년 UEFA '올해의 선수'에

뽑힌 브라질 출신의 특급 미드필더 카카, 뛰어난 프리킥 능력을 과시하는 안드레아 피를로,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두 골을 쏘아 올린 필리포 인차기 등 이름 만으로도 무서운 화력을 과시한다.

유난히 UEFA 챔피언스리그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A조의 리버풀(잉글랜드)은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이번 시즌에 기필코 설욕, 통산 6번째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3차 예선부터 시작한 리버풀은 톨루즈(프랑스)를 가볍게 제압하고 조별리그에 진출, 19일 새벽 2003~2004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포르투(포르투갈)와 원정 경기로 1차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4강전에서 탈락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부자구단' 첼시는 B조에 로젠보리(노르웨이)와 19일 새벽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첼시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무

엇보다 골잡이 디디에 드로그바가 무릎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고 미드필더 프랑크 램파드와 미하엘 발라코도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조제 무리뉴 첼시 감독은 그동안 벤치를 지켰던 '특정계' 안드레 세브첸코의 활약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내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F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잉글랜드)는 20일 새벽 스포르팅(포르투갈)과 조별리그 1차전 원정경기를 벌인다.

내년 1월쯤 팀 복귀를 위해 회복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박지성의 모습은 맨유가 내년 2월 20~21일 예정된 16강전에 올라야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홈랜드여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조별리그는 각 조 1, 2위 팀이 16강에 오르고 3위는 UEFA컵 32강에 합류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교축구도 '90분' 될 듯 대한축구협회 검토

대한축구협회가 전후반 80분으로 치러졌던 고등부 대회의 경기시간을 90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17일 "빠르면 내년부터 고등부 대회의 경기시간을 내년부터 각각 5분씩 연장해 90분으로 치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체적으로나 영양상태 측면에서 이제는 경기 시간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선수들의 연령과 체력을 감안해 초

등부는 50분, 중등부는 70분, 고등부는 80분으로 국내 경기를 치러왔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는 17세 이하 경기도 성인들과 똑같은 90분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어 80분 경기에 익숙한 국내 선수들의 경우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축구협회 측 설명이다.

반면 리그전이 아닌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는 국내 학원축구 현실에서 경기시간이 늘어날 경우 선수 보호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18일(화) ▲메이저리그(보스턴-토론토)(08:00-Xports) ▲07/08 NFL(워싱턴-필라델피아)(09:20-SBS스포츠) ▲추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 연맹전(14: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8:00-MBC ESPN) ▲2007 프로야구(LG-두산)(18:20-SBS스포츠) ▲FA컵 축구(인천 Utd-FC 서울)(19:40-KBSN Sports)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본원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종동)] 529-8111

문제풀이 실전(동형)모의고사문제풀이(특수프린트물) 기본서 특별반
 과목별 전범위에 걸친 문제를 매일 풀면서 시간 배분과 실전문제풀이 테크닉을 습득하는 과정 기초없는 분을 위한 강의

개강 9월 3일(주,아) ●전국 합격률 1위 학원 전국 25개 체인 학원 ●서울서울행정고시학원 광주성동 5년(최고 합격자 배출) ●저차 적당,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공인중개사전문! 전국합격률 1위! 새롭 행정고시학원 본원 361-8111
 새롭 공인중개사전문학원 본원 529-8111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다송회센터 오치동 복부소방서사거리 비디징어잡숯불구이 계절별미·하모,회 한정식 ☎(062)266-9050

콩깍지수주방 화정동 영주사거리 광주은행뒤짜지골목 모든 인구 무조건 6,000년 대표 최인화 ☎(062)381-3379

은치과의원 문충2동 심호빌딩2층 치과의원 원장 김은희 ☎(062)221-2090

아이닥터안경점 산수오거리에서 무채국방향 사무실 이전 시은품중점(3만원·우산6만원·양산) ☎(062)223-4515

우리약초&고려홍삼 목포시 산정동 1040-382번지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약초제제관리사업 대표 김재진 ☎(061)274-9915

한마음공인중개사 용전동 833-1번지 이마트,상가,토지,개발지,투자상담 대표 주일수 ☎(062)572-3200

부대찌개문홍점 문충동 셋터코사거리에서 오차동향 송수 부대찌개 전문점 대표 나영곤 ☎(062)263-2882

예술식당 지산동 법원 승강장옆 생고기,갈비찜,생태탕전문점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62)222-9998

아형성짜장분식 목포 산정동 구청호사거리 짜장, 분식 전문배달 대표 기연하 ☎(061)274-4224

영광공비적판정(산정공비) 주월동 비스포럼 전국 택배가능 대표 정다례 ☎(062)651-6452

고려인삼전산고 중흥동 인보화관리사거리 전채동창리공비 WWW.kointec.org 건강유지,체력보강을 필요로 하시는분 ☎(062)521-3600

강강술래 중흥동 1034번지 한우삼소,한근(600g)23,000원 삼겹살 가격으로 한우삼소를 구매드립니다 ☎(062)682-5231

홍어한마리 문암동 문암시장영 삼합,홍어탕,홍어찌짐,병어탕 낙지볶음,홍어회무침 전문 ☎(062)525-0013

다미등뼈갈자탕 은남동 중로약국2층 한시농협앞입구 등뼈찜,해물등뼈찜 대표 이현대 ☎(062)956-9282

대술마을광주침단점 광산구 쌍암동 호수공원앞 대나무위에 구운 촉촉하고 맛있는 고기! ☎(062)974-4300~1

한라공방전골·삼겹살 북구 임산동 신희택시맞은편 공방전골,삼겹살,소떡리국,전골,갈비탕 대표 차정민 ☎(062)571-2374